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강원도 6대 생활권역별 특성 분석

- 인구이동, 경제 및 주거 부문을 중심으로 -

지 경 배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지금까지 강원도의 공간계획 전략은 『7+3』 플랜이었다. 여기서 “7”은 교통망과 자원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시간 연계망을 구축하는 “성장축”의 개념¹⁾이며, “3”은 거점으로서의 지역중심도시권을 말하는데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이 그 곳이다. 이들 도시는 전국의 성장거점도시 형성을 목표로 하였던 제2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강원도의 거점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강원도의 대표적 지역중심도시이다.

민선4기 들어 강원도정은 기존 강원도의 공간계획전략인 『7+3플랜』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계획 전략으로서 『7+6네트』를 제안하였다. 『7+3플랜』이 춘천, 원주, 강릉 3개 거점도시를 축으로 하여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집중력과 흡인력에 대항할 거점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면, 『7+6네트』 전략은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부터 분산효과를 극대화시킬 공간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즉, 그 동안 강원도가 7대 성장축의 형성에 주력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아직 교통망 구축이 완성되지 않았고 또 성장축으로 기능할 만큼 잠재력이 결집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3대 거점(춘천, 원주, 강릉)에서 6대 생활권역으로 공간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7대 성장축 형성을 촉진시키고 3대 지역중심도시 기능과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원도 공간계획과 관련된 연구는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을 주요 비교틀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새롭게 제시된 이들 6대 권역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경제 또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 있다.

1) 강원도 7대 성장축은 강원도 접경지역을 축으로 하는 “한민적 평화지대”,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청정산업휴양벨트”, 원주-강릉간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국토동서복합물류·레포츠벨트”, 태백권 폐광지대를 아우르는 “남부고원 신산업·관광벨트”, 춘천-원주간 중앙고속도로 축 주변지역을 축으로 하는 “국토중앙 지식기반산업벨트”, 동해안 지역을 포함하는 “환동해 해양산업·관광벨트”, 강원도 생태자원을 축으로 하는 “백두대간 생태산업·휴양벨트”를 말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강원도가 민선4기를 맞아 새롭게 제시한 6대 생활권역에 대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 경제상태(경제활동상태,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주거생활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원도 공간개발계획의 기능적 보완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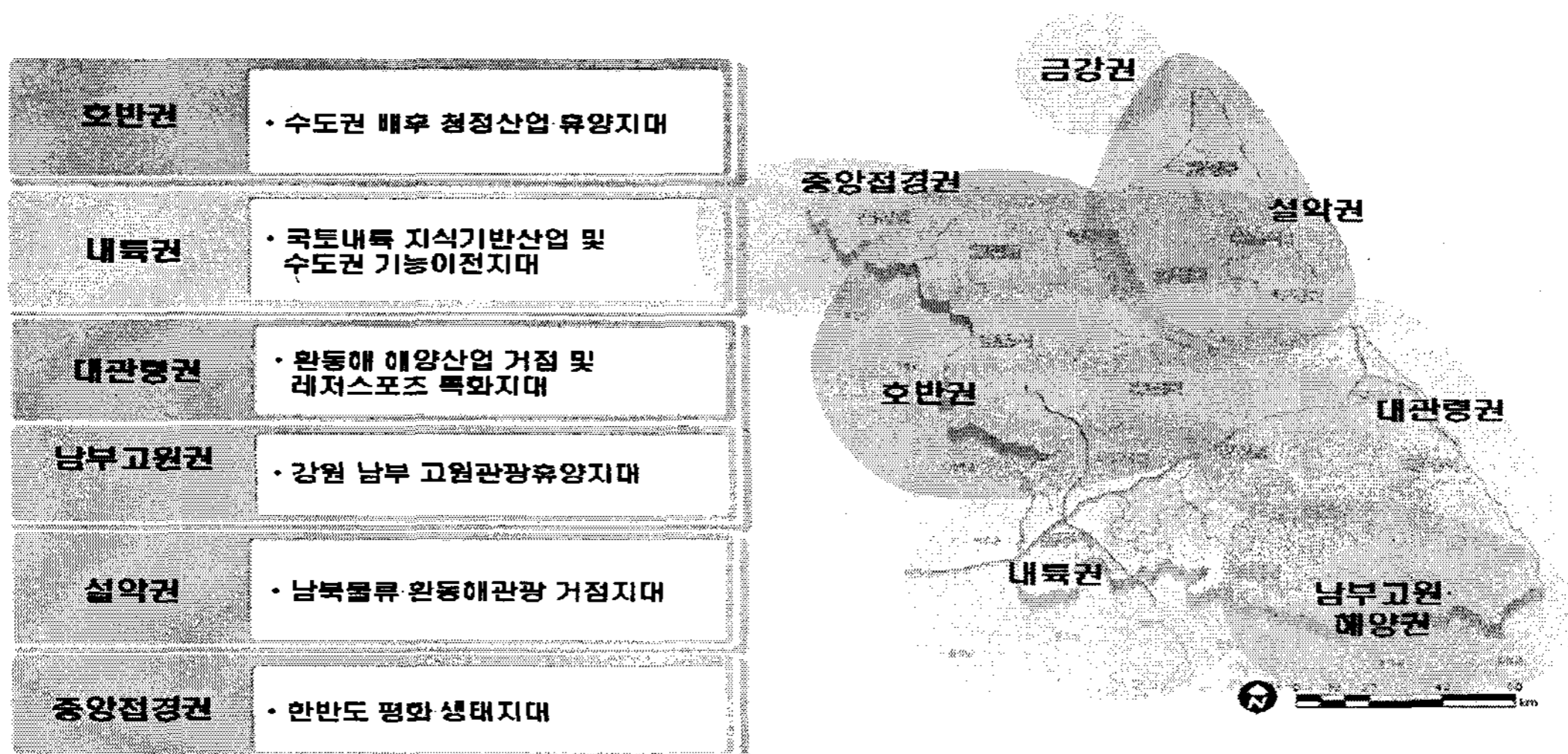
2. 강원도 6대 생활권역 분류

1) 강원도의 “6네트” 권역

강원도에서 제시한 『7+6네트』 중 “7”은 상기한 7대 성장축을 의미하며 “6”은 생활권역을 의미한다. 기존 춘천, 원주, 강릉권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소 인위적인 거점개발 권역이라면 『6네트』는 통근통학, 시장권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네트”는 네트워크의 의미로서 7대 성장축과 각 생활권역이 상호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자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즉,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6대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7대 성장축 형성을 촉진하고 3대 지역중심도시(춘천, 원주, 강릉) 기능과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다. 강원도가 제시하는 『6네트』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강원도 6네트 권역 및 권역별 발전방향



자료 : 강원도·강원발전연구원(2006),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 2차 시안자료.

첫째, “호반권”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지역을 포함하며 서울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서 청정산업과 휴양지대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역에서는 춘천시가 권역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

둘째, “내륙권”은 원주, 횡성, 영월지역을 포함하며 국토내륙 지식기반산업 및 수도권 기능 이전지대로서 기대되는 곳이다. 이 권역에서는 원주시가 권역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

셋째, “대관령권”은 강릉, 동해, 평창, 정선, 양양지역을 포함하며 환동해 해양산업의 거점 및 레저스포츠 특화지대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역에서는 강릉시가 권역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

넷째, “남부고원권”은 태백, 삼척, 정선, 영월지역을 포함하며 강원남부 고원관광지대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역은 “7대 성장축”에 있어서 “남부고원 신산업·관광지대”와 지리적 범위가 일치한다. 이 권역은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할 대표도시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설악권”은 속초, 양양, 고성, 인제지역을 포함하며 남북물류·환동해관광 거점지대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역의 경우에도 중심도시 기능이 미약하다. 현실적으로 가운데에 자리한 설악산국립공원의 존재로 인하여 중심도시기능이 성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접경권”은 철원, 화천지역을 포함하며 한반도 평화생태지대로서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철원권은 행정을 제외하고는 사법, 경찰, 세무업무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처리되는 지역이다.

2) 6대 생활권역의 재분류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가 제안한 『6네트』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일부 시군은 각 권역에 걸쳐서 중복된다. 본고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위한 권역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3차 강원도 종합계획 팀과 공동으로 기존 『6네트』의 해당 시군에 대해 시군별(또는 읍면별)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재분류 기준은 시장 등 실제생활권, 교통망, 7대 성장축과의 연계성 등이었다.

<표 1> 6대 생활권역의 재분류

구분	기존 "6네트" 해당 시군	재분류 해당 시군(읍면)
호반권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북면 제외)
내륙권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일부(평창읍, 방림면)
대관령권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도계읍 제외), 평창군 (평창읍, 방림면, 미탄면 제외), 정선군 임계면
남부고원권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도계읍, 평창군 일부(미탄면), 영월군 일부(상동면, 중동면), 정선군(임계면 제외)
설악권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북면
중앙접경권	철원군, 화천군	철원군

각 권역별로는 호반권의 경우,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를 포함하는 인제군 북면을 제외하였다. 내륙권의 경우, 원주생활권에 가까운 평창군 평창읍과 방림면을 포함시켰다.

대관령권의 경우, 평창군에서 상기 평창읍과 방림면외에 탄광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탄면을 제외하였고 정선군은 대관령일대 강릉생활권인 임계면만을 포함하였으며 탄광권인 도계읍을 제외한 삼척시를 포함하였다.

남부고원권의 경우, 태백시, 삼척시 도계읍, 영월군 상동면·중동면, 정선군 등 기존 탄광지역 시군(읍면)을 중심으로 권역에 포함시켰다. 설악권은 상기 인제군 북면을 권역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중앙접경권은 실제 춘천생활권인 화천군을 권역에서 제외하고 철원군만을 권역에 포함하였다.

3. 6대 생활권역별 특성 분석

1) 인구이동 특성

강원도 6대 생활권별 인구이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995년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 표본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이동은 95년, 2000년 공히 5년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이동인구를 각 권역별로 분석하였다.

(1) 시도간 이동 특성

<표 2> 강원도 6대권역별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

(단위 : 명,%)

구분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	남부고원권	설악권	중앙접경권	전체
1995년	7,360 (32.4)	5,505 (24.3)	5,230 (23.0)	1,756 (7.7)	2,160 (9.5)	679 (3.0)	22,690 (100.0)
2000년	7,024 (27.2)	8,090 (31.4)	5,544 (21.5)	974 (3.8)	3,593 (13.9)	580 (2.2)	25,805 (100.0)
증감	-336	2,585	314	-782	1,433	-99	3,115
증감률	-4.6	47.0	6.0	-44.5	66.3	-14.6	13.7

주1. 시도간 인구이동중 강원도 지역은 제외한 수치임.

주2. 증감률=(2000년-95년)/95년*100

자료. 1995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자료.

강원도 6대권역별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강원도내 이동 제외)를 95년과 2000년간 비교해 보면 설악권(증감률 66.3%), 내륙권(증감률 47.0%), 대관령권(증감률 6.0%)의 순으로 3개 권역은 증가하였고 남부고원권(증감률 -44.5%), 중앙접경권(증감률 -14.6%), 호반권(증감률 -4.6%)은 감소하였다.

속초, 고성, 양양 등 설악권과 원주, 횡성 등 수도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내륙권에서 현저한 인구유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석탄산업합리화이후 쇠퇴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남부고원권과 철원지역 중앙접경권에서의 현저한 외지인구 유입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지역을 포함하는 호반권에서 외지인구 유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호반권의 경우, 설악권이나 대관령권과 같이 지역의 뚜렷한 핵심자원(예:관광자원)이 없고 내륙권과 같이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도권 등 외지인구 유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로서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한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등 남부고원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단계에 올라 서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6대 권역별 인구이동 추이(유입권역별)

(단위 : 명,%)

구분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		남부고원권		설악권		중앙접경권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서울 수도권	4,953 (50.0)	5,339 (48.7)	3,965 (37.4)	5,613 (52.5)	3,518 (43.3)	3,469 (36.1)	1,296 (43.6)	577 (40.1)	1,448 (40.5)	2,902 (51.6)	522 (45.5)	494 (76.6)
충청권	697 (7.0)	479 (4.4)	366 (3.4)	931 (8.7)	499 (6.1)	458 (4.8)	133 (4.5)	100 (7.0)	195 (5.5)	173 (3.1)	27 (2.4)	17 (2.6)
경상권	1,169 (11.8)	772 (7.0)	941 (9.0)	1,097 (10.3)	849 (10.4)	1,320 (13.7)	224 (7.5)	258 (17.9)	432 (12.1)	401 (7.1)	101 (8.8)	43 (6.7)
전라권	427 (4.3)	343 (3.1)	163 (1.5)	360 (3.4)	280 (3.4)	225 (2.3)	69 (2.3)	23 (1.6)	67 (1.9)	87 (1.5)	23 (2.0)	21 (3.3)
강원권	2,540 (25.7)	3,943 (36.0)	5,109 (48.1)	2,603 (24.3)	2,897 (35.6)	4,058 (42.3)	1,214 (40.9)	464 (32.3)	1,413 (39.5)	2,032 (36.1)	469 (40.9)	65 (10.1)
기타권	114 (1.2)	91 (0.8)	70 (0.7)	89 (0.8)	84 (1.0)	72 (0.7)	34 (1.1)	16 (1.1)	18 (0.5)	30 (0.5)	6 (0.5)	5 (0.8)
전체	9,900 (100.0)	10,967 (100.0)	10,614 (100.0)	10,693 (100.0)	8,127 (100.0)	9,602 (100.0)	2,970 (100.0)	1,438 (100.0)	3,573 (100.0)	5,625 (100.0)	1,148 (100.0)	645 (100.0)

주1. 서울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권=대전, 충청남·북도,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전라도는 광주, 전라남·북도, 기타권=제주도, 북한, 외국을 포함함.

자료. 1995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자료.

한편 강원도 6대 권역에 대한 인구이동 추이를 유입권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강원도내 이동 포함), 대부분 서울 수도권과 강원권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권의 경우 2000년 현재 타지역에 비해 강원권내에서 유입된 인구비율이 가장 높았고(3,943명), 서울수도권 인구유입은 95년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하였지만 비율면에서는 감소하였다(50.0%→48.7%)

내륙권은 서울수도권 유입인구가 2000년 현재 타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5,613명), 강원도내 유입인구는 95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48.1%→24.3%). 내륙권은 특히 95년에 비해 충청권 인구유입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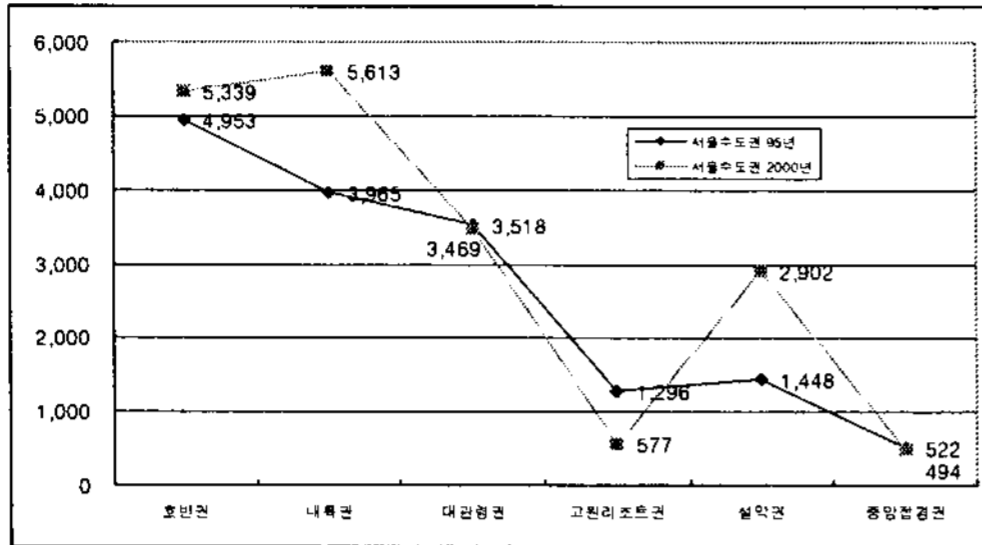
대관령권의 경우 2000년 현재 타권역에 비해 강원도내에서 유입(또는 이동)한 인구가 많았고(4,058명), 경상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2000년 현재 1,320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가장 많았다.

남부고원권은 서울수도권 유입인구가 95년에 비해 과반수 이상 감소하였고(1,296명→577명), 강원도내 유입인구 또한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1,214명→4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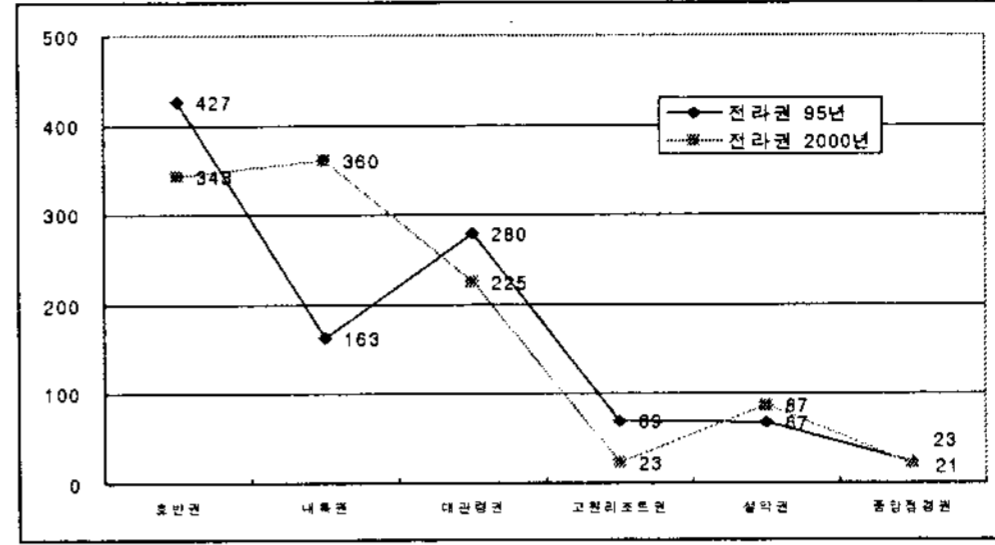
설악권은 서울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이 95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다(1,448명→2,902명). 마지막으로 중앙접경권은 강원도내에서 유입된 인구가 95년에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69명:40.9%→65명:10.1%).

<그림 2> 유입권역별 인구이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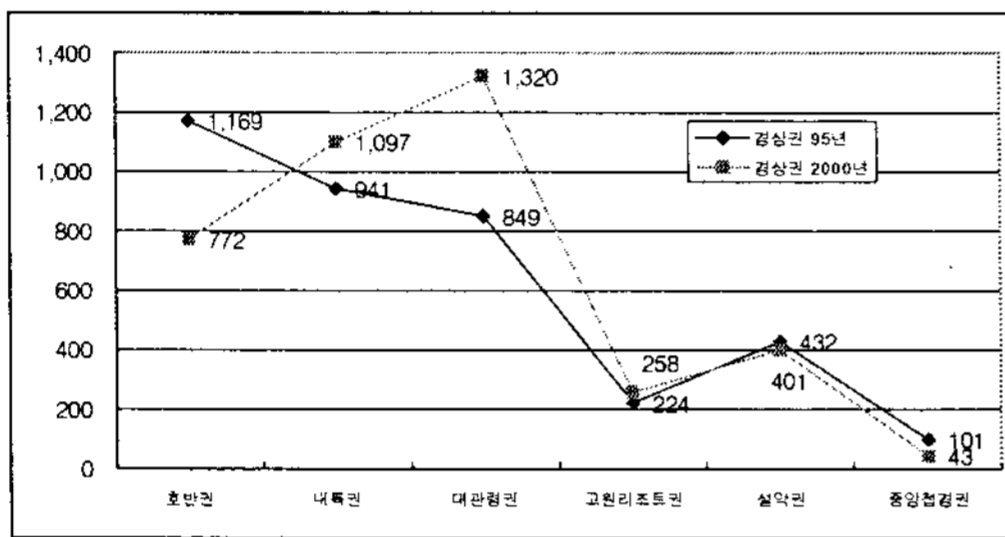
<서울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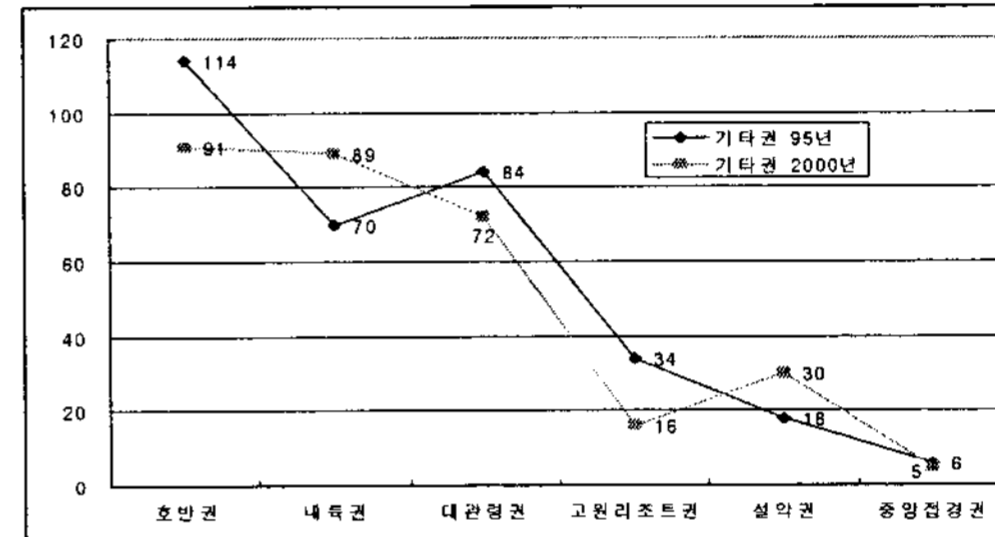
<충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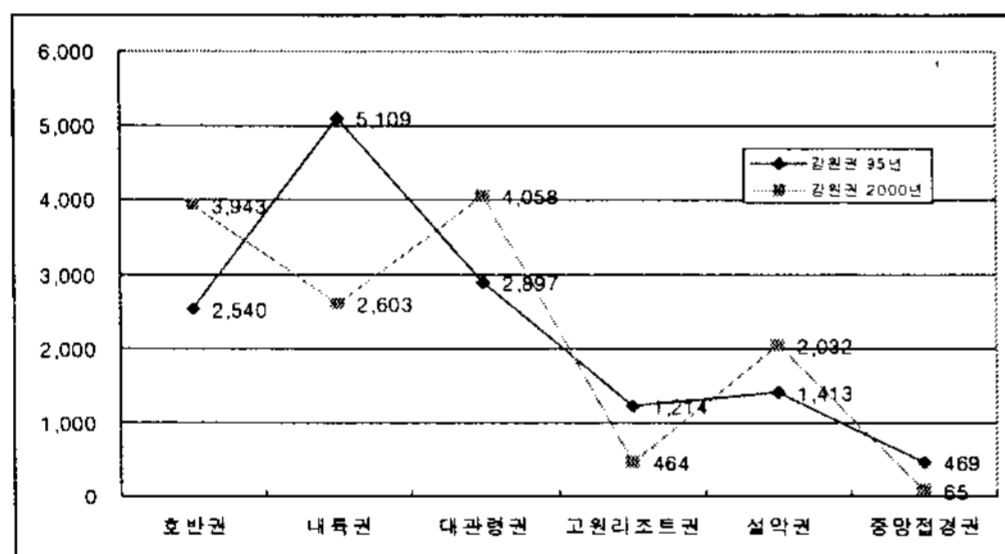
<경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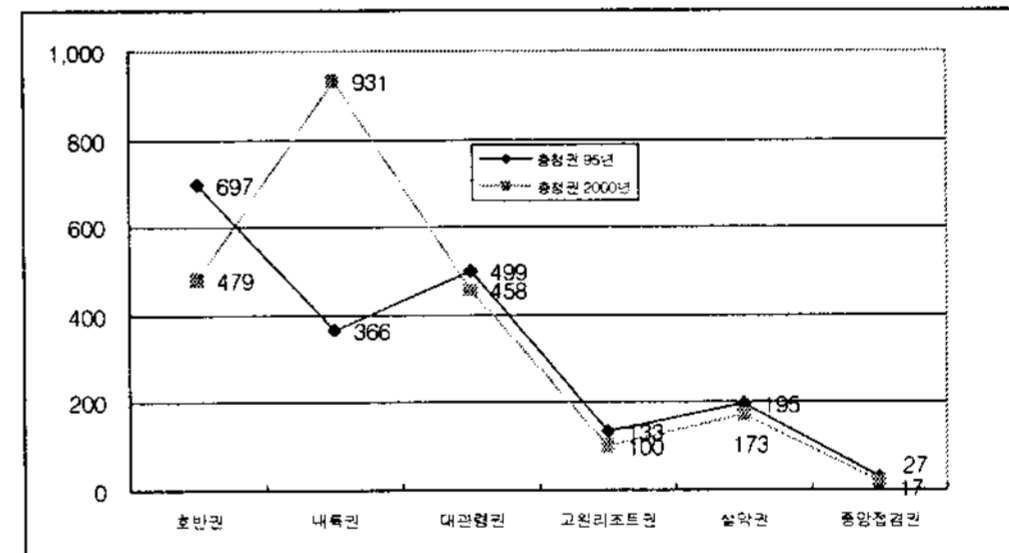
<전라권>



<강원권>



<기타권>



종합해 보면 호반권은 서울수도권 인구를 다소 흡수하고 있지만 도내 인구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내륙권은 도내 이동보다는 서울수도권과 충청권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령권은 주로 도내 인구이동이 주를 이루며 경상권 인구를 흡수하고 있었고 남부고원권은 수도권 및 도내 인구 유입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설악권은 수도권 인구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었고 도내 인구이동 또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앙접경권은 수도권 인구 흡수력이 다소 감소하였고 강원도내 인구 이동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원도내 이동 특성

<표 4> 6대 권역별 강원도내 인구이동 추이(95년-2000년)

(단위 : 명,%)

구분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	남부고원권	설악권	중앙접경권	전체
1995년	3,680 (16.2)	3,663 (16.1)	2,986 (13.2)	1,052 (4.6)	1,107 (4.9)	1,153 (5.1)	13,641 (100.0)
2000년	3,943 (15.3)	2,603 (10.1)	4,083 (15.8)	464 (1.8)	2,032 (7.9)	65 (0.3)	13,190 (100.0)
증감	263	-1,060	1,097	-588	925	-1,088	-451
증감률	7.2	-28.9	36.7	-55.9	83.6	-94.4	-3.31

주1. 증감률=(2000년-95년)/95년*100

자료. 1995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자료.

도내 6대 권역에 대한 강원도내 인구이동 추이를 95년과 2000년간 비교해 보면, 설악권(증감률 83.6%), 대관령권(증감률 36.7%), 호반권(증감률 7.2%)의 순으로 3개 권역은 증가하였고 중앙접경권(증감률 -94.4%), 남부고원권(증감률 -55.9%), 내륙권(증감률 -28.9%)은 감소하였다.

강릉과 속초를 중심축으로 한 대관령권과 설악권은 도내 인구이동이 5년간 약 1,000여명 정도 증가하였다. 인구이동 규모면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관령권이 4,083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반권이 3,943명으로 타권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내륙권은 타 시도로부터의 높은 인구유입과는 달리 도내에서의 인구이동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2,603명으로 대관령권, 호반권에 이어 3위). 또한 95년과 비교한 증감 규모에서도 약 1,000명 정도 감소하였다(3,663명→2,603명).

남부고원권 및 중앙접경권 역시 95년과 비교하여 도내 인구이동 규모가 현격히 감소하였는데(남부고원권 증감률=-3.31, 중앙접경권 증감률=-94.9), 특히 철원지역 단일 권역인 중앙접경권은 95년에 비해 도내 이동이 1,000명 감소하였다.

<표 5> 6대 권역별 도내 인구이동 추이(유입 시군별)

(단위 : 명,%)

구분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		남부고원권		설악권		중앙접경권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춘천시	221 (6.0)	331 (8.4)	176 (4.8)	374 (14.4)	305 (10.2)	310 (7.6)	134 (12.7)	39 (8.4)	162 (14.6)	188 (9.3)	12 (1.0)	31 (47.7)
원주시	216 (5.9)	557 (14.1)	201 (5.5)	280 (10.8)	180 (6.0)	321 (7.9)	76 (7.2)	47 (10.1)	127 (11.5)	71 (3.5)	166 (14.4)	3 (4.6)
강릉시	267 (7.3)	413 (10.5)	379 (10.3)	239 (9.2)	476 (15.9)	407 (10.0)	161 (15.3)	78 (16.8)	124 (11.2)	351 (17.3)	215 (18.6)	4 (6.2)
동해시	265 (7.2)	210 (5.3)	128 (3.5)	100 (3.8)	151 (5.1)	439 (10.8)	40 (3.8)	72 (15.5)	28 (2.5)	146 (7.2)	68 (5.9)	3 (4.6)
태백시	298 (8.1)	122 (3.1)	411 (11.2)	142 (5.5)	127 (4.3)	320 (7.8)	42 (4.0)	31 (6.7)	46 (4.2)	54 (2.7)	50 (4.3)	1 (1.5)
속초시	152 (4.1)	190 (4.8)	173 (4.7)	50 (1.9)	72 (2.4)	302 (7.4)	42 (4.0)	6 (1.3)	43 (3.9)	169 (8.3)	50 (4.3)	5 (7.7)
삼척시	319 (8.7)	171 (4.3)	558 (15.2)	89 (3.4)	179 (6.0)	599 (14.7)	26 (2.5)	64 (13.8)	30 (2.7)	126 (6.2)	73 (6.3)	0 (0.0)
홍천군	293 (8.0)	444 (11.3)	207 (5.7)	188 (7.2)	138 (4.6)	125 (3.1)	98 (9.3)	8 (1.7)	67 (6.1)	105 (5.2)	104 (9.0)	3 (4.6)
횡성군	196 (5.3)	129 (3.3)	174 (4.8)	338 (13.0)	114 (3.8)	78 (1.9)	47 (4.5)	7 (1.5)	88 (7.9)	24 (1.2)	68 (5.9)	0 (0.0)
영월군	154 (4.2)	60 (1.5)	144 (3.9)	165 (6.3)	106 (3.5)	99 (2.4)	26 (2.5)	36 (7.8)	38 (3.4)	33 (1.6)	56 (4.9)	0 (0.0)
평창군	243 (6.6)	127 (3.2)	174 (4.8)	180 (6.9)	99 (3.3)	262 (6.4)	37 (3.5)	10 (2.2)	105 (9.5)	74 (3.6)	36 (3.1)	1 (1.5)
정선군	440 (12.0)	115 (2.9)	357 (9.7)	216 (8.3)	289 (9.7)	296 (7.2)	55 (5.2)	49 (10.6)	85 (7.7)	48 (2.4)	71 (6.2)	0 (0.0)
철원군	71 (1.9)	175 (4.4)	85 (2.3)	36 (1.4)	42 (1.4)	34 (0.8)	13 (1.2)	2 (0.4)	25 (2.3)	39 (1.9)	32 (2.8)	0 (0.0)
화천군	127 (3.5)	239 (6.1)	101 (2.8)	30 (1.2)	74 (2.5)	29 (0.7)	78 (7.4)	4 (0.9)	31 (2.8)	27 (1.3)	28 (2.4)	8 (12.3)
양구군	117 (3.2)	236 (6.0)	89 (2.4)	36 (1.4)	44 (1.5)	49 (1.2)	54 (5.1)	3 (0.6)	21 (1.9)	42 (2.1)	26 (2.3)	0 (0.0)
인제군	146 (4.0)	249 (6.3)	125 (3.4)	84 (3.2)	90 (3.0)	72 (1.8)	86 (8.2)	3 (0.6)	54 (4.9)	133 (6.5)	45 (3.9)	4 (6.2)
고성군	49 (1.3)	107 (2.7)	99 (2.7)	34 (1.3)	314 (10.5)	127 (3.1)	17 (1.6)	3 (0.6)	20 (1.8)	259 (12.7)	25 (2.2)	2 (3.1)
양양군	106 (2.9)	68 (1.7)	82 (2.2)	22 (0.8)	186 (6.2)	189 (4.6)	20 (1.9)	2 (0.4)	13 (1.2)	143 (7.0)	28 (2.4)	0 (0.0)
전체	3,680 (100.0)	3,943 (100.0)	3,663 (100.0)	2,603 (100.0)	2,986 (100.0)	4,083 (99.4)	1,052 (100.0)	464 (100.0)	1,107 (100.0)	2,032 (100.0)	1,153 (100.0)	65 (100.0)

주1. 2000년 자료중 시군 미상인 35case는 불포함.

자료. 1995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자료.

본고에서는 강원도 6대 권역별 도내 인구이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권역

에 유입된 인구가 도내 어느 시군에서 유입(또는 이동)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호반권은 원주가 14.1%로 가장 많았고 홍천이 11.3%, 강릉이 10.5%, 춘천이 8.4%, 인제, 화천, 양구가 각각 6.3%, 6.1%, 6.0% 등으로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9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기 지역은 대부분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정선, 태백, 삼척, 평창, 영월 등에서의 유입(또는 이동)은 현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륙권은 춘천이 14.4%로 가장 많았고 횡성이 13.0%, 원주가 10.8%, 강릉이 9.2%, 정선이 8.3%, 홍천이 7.2%, 평창, 영월이 각각 6.9%, 6.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95년과 비교해 보면, 춘천, 원주, 횡성에서 현격한 인구유입(또는 이동)이 이루어 졌고 삼척, 태백, 속초에서의 유입(또는 이동)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대관령권은 95년에 비해 권역내 유입(또는 이동)인구가 약 1,000명 정도 증가한 가운데 삼척이 14.7%로 가장 높았고, 동해가 10.8%, 강릉이 10.0% 등으로 높았고 이밖에 태백, 춘천, 속초, 정선이 7%대로 높게 나타났다. 95년과 비교하면, 동해와 삼척이 유입(또는 이동)이 현저히 증가했고, 고성, 강릉, 춘천 등에서의 유입(또는 이동)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부고원권은 95년에 비해 권역내 인구유입(또는 이동)이 현격히 감소한 가운데 2000년 기준으로 강릉에서의 유입이 16.8%로 가장 높았고 동해가 15.5%, 삼척이 13.8%, 정선이 10.6%, 원주가 10.1%, 춘천이 8.4%, 영월 7.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95년과 비교해 보면, 동해, 삼척, 원주에서의 유입(또는 이동)이 현격히 증가하였고, 홍천, 화천, 인제, 춘천, 강릉 등에서의 유입(또는 이동)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설악권은 95년에 비해 권역내 유입(또는 이동) 인구가 900명 이상 증가한 가운데, 강릉이 17.3%로 월등히 높았고 고성이 12.7%, 춘천이 9.3%, 속초가 8.3%, 동해가 7.2%, 양양이 7.0%, 인제가 6.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9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에서의 유입(또는 이동) 인구는 현저히 증가한 반면, 원주, 평창, 횡성, 정선 등에서의 유입(또는 이동)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춘천은 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비율은 감소).

마지막으로 중앙접경권은 95년에 비해 인구유입(또는 이동)이 현격히 감소한 가운데 춘천에서의 유입인구가 47.7%로 가장 높았다. 9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시군에서 감소되었으며 춘천에서만 유일하게 유입인구가 증가하였다.

종합해 보면, 호반권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를 중심으로 한 권역내 이동으로 단일 생활권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단, 인제의 경우 설악권에도 포함) 주변 원주지역의 인구를 상당히 흡수하고 있다. 또한 5년전에 비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태백 등 강원 남부권 인구의 흡수력이 저하되고 있다.

내륙권은 주로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원주, 횡성, 영월, 평창 등에서의 권역내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변 춘천지역의 인구를 일부 흡수하고 있지만 호반권이 원주에 갖는 흡수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5년전에 비해 태백, 속초, 삼척, 정선 등의 지역에 대한 흡수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대관령권은 95년에 비해 권역내 유입(또는 이동)인구가 현저히 증가한 가운데, 동해, 삼척, 속초의 권역내 이동 폭이 눈에 두드러지며 태백, 원주, 정선에서도 상당수가 권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남부고원권은 95년에 비해 권역내 인구유입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강릉과 춘천에 대한 흡수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설악권은 95년에 비해 권역내 유입(또는 이동) 인구가 현저히 증가한 가운데,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권역내 이동이 두드러지며 95년에 비해 원주 등 내륙권에 대한 흡수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중앙접경권은 95년에 비해 권역내 유입이 현격히 감소하였다. 수도권 인구유입 또는 춘천권과의 연계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2) 경제활동상태 및 산업·직업별 특성

<표 6> 6대 권역별 경제활동상태(2000년)

(단위 : 명,%)

구분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	고원 리조트권	설악권	중앙 접경권	전체
일의 여부	있음(a)	17,761 (47.1)	14,095 (46.8)	16,187 (45.6)	4,385 (48.5)	8,473 (42.7)	1,811 (47.3)	62,712 (46.1)
	잠시 쉬고 있음(b)	136 (0.4)	85 (0.3)	122 (0.3)	29 (0.3)	269 (1.4)	163 (4.3)	804 (0.6)
	없음(c)	19,796 (52.5)	15,947 (52.9)	19,164 (54.0)	4,624 (51.2)	11,115 (56.0)	1,856 (48.5)	72,502 (53.3)
	전체	37,693 (100.0)	30,127 (100.0)	35,473 (100.0)	9,038 (100.0)	19,857 (100.0)	3,830 (100.0)	136,018 (100.0)
구직여부 (c중에서)	찾지 않음	17,875 (90.3)	13,510 (84.7)	16,830 (87.8)	3,906 (84.5)	9,945 (89.5)	1,694 (91.3)	63,760 (87.9)
	찾아 봄	1,921 (9.7)	2,437 (15.3)	2,334 (12.2)	718 (15.5)	1,170 (10.5)	162 (8.7)	8,742 (12.1)
	전체	19,796 (100.0)	15,947 (100.0)	19,164 (100.0)	4,624 (100.0)	11,115 (100.0)	1,856 (100.0)	72,502 (100.0)

자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자료.

강원도 6대 권역에 대한 2000년도 경제활동 상태를 알아본 결과, 각 권역에 걸쳐서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표본인구의 46.1%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이중 남

부고원권(48.5%), 중앙접경권(47.3%), 호반권(47.1%), 내륙권(46.8%)이 평균 이상이었고 대관령권(45.6%)과 설악권(42.7%)이 평균보다 일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직 여부를 알아 본 결과, 타 권역에 비해 남부고원권(15.5%)과 내륙권(15.3%)에서 구직 활동이 높았던 반면 중앙접경권(8.7%)과 호반권(9.7%)은 다소 낮았다. 타권역에 비해 제조업 비율이 높은 내륙권과 폐광지역 특별법 등으로 개발붐이 일고 있는 남부고원권에서 구직활동 비율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7> 6대 권역별 산업별 종사자수(2000년)

(단위 : 명,%)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	고원 리조트권	설악권	중앙 접경권	전체
농림어업	5,010 (28.1)	2,897 (20.6)	3,238 (20.4)	860 (19.5)	2,224 (25.5)	821 (41.8)	15,050 (24.0)
광공업	947 (5.3)	2,069 (14.7)	1,449 (9.1)	981 (22.3)	450 (5.2)	126 (6.4)	6,022 (9.6)
제조업	(97.4)	(98.3)	(95.0)	(20.0)	(94.4)	(96.8)	(84.3)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1,844 (66.5)	9,076 (64.6)	11,207 (70.5)	2,564 (58.2)	6,034 (69.3)	1,016 (51.8)	41,741 (66.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6)	(0.4)	(1.5)	(0.8)	(0.8)	(0.4)	(0.8)
건설업	(10.4)	(12.4)	(12.9)	(12.8)	(11.9)	(10.6)	(11.9)
도매 및 소매업	(17.3)	(19.7)	(20.8)	(20.0)	(20.9)	(16.8)	(19.4)
숙박 및 음식점업	(15.4)	(15.4)	(13.8)	(15.6)	(21.5)	(18.6)	(15.9)
운수업	(4.2)	(6.4)	(7.5)	(6.6)	(5.1)	(2.1)	(5.8)
통신업	(1.4)	(2.6)	(1.8)	(0.9)	(1.1)	(0.7)	(1.7)
금융 및 보험업	(4.8)	(5.1)	(5.4)	(4.8)	(4.4)	(6.7)	(5.0)
부동산 및 임대업	(1.8)	(2.1)	(1.6)	(1.2)	(1.8)	(0.8)	(1.8)
사업서비스업	(2.5)	(3.4)	(2.7)	(2.5)	(2.2)	(1.8)	(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7.4)	(8.1)	(10.8)	(11.1)	(11.5)	(19.3)	(12.4)
교육서비스업	(10.4)	(10.5)	(9.6)	(8.4)	(7.6)	(6.1)	(9.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	(5.0)	(3.1)	(5.7)	(2.1)	(4.6)	(3.8)
여취업,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6)	(1.7)	(1.8)	(1.9)	(2.3)	(2.3)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천서비스업	(7.1)	(6.4)	(6.5)	(7.4)	(6.4)	(9.2)	(6.7)
가사 서비스업	(1.0)	(0.6)	(0.3)	(0.2)	(0.4)	(0.1)	(0.6)
국제 및 외국기관	(0.1)	(0.0)	(0.0)	(0.0)	(0.0)	(0.0)	(0.0)
전체	17,801 (100.0)	14,042 (100.0)	15,894 (100.0)	4,405 (100.0)	8,708 (100.0)	1,963 (100.0)	62,813 (100.0)

자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자료.

6대 권역별로 산업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산업별 종사자수를 권역별로 분석하였다. 농림어업 등 1차산업 종사자 비율은 타권역에 비해 중앙접경권(41.8%)이 현저히 높았고 호반권(28.1)도 평균 이상을 차지했다.

광공업 등 2차 산업 종사자는 남부고원권(22.3%)이 현저히 높았고 내륙권(14.7%)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권역에 비해 광산산업이 발달한 남부고원권에서 광공업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낮았다(20%).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등 종사자는 전체적으로 대관령권(70.5%)과 설악권(69.3%) 등 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권역에서 다소 높았다.

한편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등 종사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세항목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호반권은 타권역에 비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7.4%) 및 교육서비스업(10.4%) 종사자가 비율이 다소 높았다.

내륙권은 타권역에 비해 통신업과(2.6%) 교육서비스업(10.5%)에서 높았고, 대관령권은 운수업(7.5%)과 교육서비스업(9.6%)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부고원권은 타권역에 비해 보건 사회복지사업(5.7%)에서 높았고, 설악권은 숙박 및 음식점업(21.5%)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앙접경권도 숙박 음식점업(18.6%)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3%)이 타권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8> 6대 권역별 직업별 종사자수(2000년)

(단위 : 명,%)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	고원 리조트권	설악권	중앙 접경권	전체
고위임직원· 관리자	339 (2.0)	553 (3.9)	586 (3.7)	143 (3.2)	191 (2.2)	18 (1.0)	1,830 (3.0)
전문가	1,342 (7.9)	1,200 (8.5)	1,145 (7.2)	290 (6.6)	473 (5.5)	97 (5.2)	4,547 (7.3)
기술공 및 준전문가	597 (3.5)	543 (3.9)	895 (5.6)	140 (3.2)	385 (4.5)	44 (2.3)	2,604 (4.2)
사무 종사자	1,977 (11.6)	1,787 (12.7)	1,837 (11.5)	417 (9.5)	857 (10.0)	157 (8.4)	7,032 (11.4)
서비스 종사자	2,333 (13.7)	1,617 (11.5)	2,137 (13.4)	506 (11.5)	1,298 (15.2)	264 (14.1)	8,155 (13.2)
판매 종사자	2,011 (11.8)	1,591 (11.3)	2,071 (13.0)	490 (11.1)	1,158 (13.6)	188 (10.0)	7,509 (12.1)
농·림·어업속 련종사자	4,942 (29.0)	2,854 (20.3)	3,066 (19.2)	767 (17.4)	2,065 (24.2)	804 (42.9)	14,498 (23.4)
기능원·관련 종사자	1,107 (6.5)	1,152 (8.2)	1,623 (10.2)	664 (15.0)	606 (7.1)	111 (5.9)	5,263 (8.5)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971 (5.7)	1,400 (10.0)	1,227 (7.7)	390 (8.8)	563 (6.6)	83 (4.4)	4,634 (7.5)
단순노무종사 자	1,431 (8.4)	1,370 (9.7)	1,401 (8.8)	605 (13.7)	946 (11.1)	110 (5.9)	5,863 (9.5)
전체	17,050 (100.0)	14,067 (100.0)	15,988 (100.0)	4,412 (100.0)	8,542 (100.0)	1,876 (100.0)	61,935 (100.0)

자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원자료.

종합하면, 농림업 등 1차산업 비율은 중앙접경권이 타권역에 비해 2배 가량 높고, 제조업 비율은 광업비중이 높은 남부고원권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다.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비율은 관광지가 많은 대관령권과 설악권에서 다소 높았다. 또한 교육서비스업 비율은 춘천, 원주, 강릉 등 중심도시가 있는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에서 높았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비율은 도청소재지 춘천이 있는 호반권과 중앙접경권에서 높았다. 숙박음식업은 리조트가 밀집해 있는 설악권과 군인비율이 높은 중앙접경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6대 권역별 경제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직업별 종사자수를 분석한 결과, 산업별종사자 비율과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23.4%로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앙접경권이 42.9%로 현저히 높았다. 이밖에 호반권(29%), 설악권(24.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서비스 종사자는 설악권이 15.2%로 타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무종사자는 내륙권이 12.7%로 다소 높았고, 단순노무자 종사자는 남부고원권이 13.7%로 다소 높았고 설악권도 11.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능원 관련종사자는 남부고원권이 15%로 매우 높았고 대관령권이 10.2%로 다소 높았다.

이밖에 전문가 직종은 내륙권이 8.5%로 다소 높았고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종은 내륙권(3.9%)과 대관령권(3.7%)이 다소 높았다.

3) 주거생활 수준별 특성

6대 권역별 주거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05년도 가구조사와 주택조사 원자료 항목중 방수, 부엌수, 주택연건평(주거용 면적), 부엌시설수준(입식, 재래식), 화장실 시설수준(수세식, 재래식), 목욕시설수준(온수시설, 비온수시설), 주택건립년수 등의 항목을 추출하여 원자료를 재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방수, 부엌수, 주택면적은 6대 권역별 최소주거수준(부록표 참조)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하였고, 부엌 시설수준, 화장실 시설수준, 목욕시설수준은 권역별 주거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건립년수는 권역별 노후주택율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되었다.

<표 9> 6대 생활권별 주거생활수준 비교(2005년)

(단위 : 평, 개, %)

구 분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	고원 리조트권	설악권	중앙 접경권	전체	
주 거 수 준	주택의 면적 (연건평)	25.74	23.80	23.12	19.48	22.63	24.15	23.6	
	방수 (개)	3.14	2.98	3.04	2.64	2.90	2.75	2.99	
	부엌수 (개)	1.28	1.20	1.22	1.08	1.18	1.09	1.2	
주 거 시 설 형 태	부엌시설	입식	132,645 (96.8)	124,936 (97.5)	141,482 (96.8)	38,077 (94.6)	52,712 (96.4)	14,501 (98.0)	504,353 (96.8)
		재래식	3,865 (2.8)	2,803 (2.2)	4,132 (2.8)	1,987 (4.9)	1,780 (3.3)	253 (1.7)	14,820 (2.9)
		없음	489 (0.4)	392 (0.3)	502 (0.4)	200 (0.5)	164 (0.3)	46 (0.3)	1,793 (0.3)
	화장실	수세식	120,275 (87.8)	111,677 (87.1)	126,366 (86.5)	30,535 (75.8)	48,496 (88.7)	30,535 (75.9)	467,884 (85.6)
		재래식	16,525 (12.1)	16,254 (12.7)	19,394 (13.3)	9,422 (23.4)	5,931 (10.9)	9,422 (23.4)	76,948 (14.1)
		없음	199 (0.1)	200 (0.2)	356 (0.2)	307 (0.8)	229 (0.4)	307 (0.8)	1,598 (0.3)
	목욕시설	온수 시설	128,885 (94.1)	120,093 (93.7)	134,244 (91.9)	33,439 (83.1)	50,720 (92.8)	13,906 (94.0)	481,287 (92.4)
		비온수 시설	1,501 (1.1)	1,196 (0.9)	1,160 (0.8)	991 (2.4)	392 (0.7)	160 (1.1)	5,400 (1.0)
		없음	6,613 (4.8)	6,842 (5.4)	10,712 (7.3)	5,834 (14.5)	3,544 (6.5)	734 (4.9)	34,279 (6.6)
	주 택 노 후 울		27,524 (24.9)	26,364 (23.8)	36,426 (29.2)	14,379 (38.2)	13,179 (27.1)	4,681 (34.1)	122,553 (27.5)

주1. 주거시설형태에서 시스템 결측값 319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주2. 노후주택율은 1985년 이전 건축된 주택비율을 의미함.

자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및 주택 부문 전수조사 원자료.

2005년 현재 주택면적(연건평), 방수, 부엌수로 알아본 권역별 주거수준은 전체적으로 호반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권은 주택면적이 평균 25.74평, 방수는 3.14개, 부엌수는 1.28개로 전 항목에 걸쳐서 가장 높았다.

또한 남부고원권은 주거수준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는데, 주택면적 19.48평, 방수 2.64개, 부엌수 1.08개로 전 항목에 걸쳐서 가장 낮았다. 이밖에 설악권이 주택면적(22.63평)에서 다소 낮았고, 중앙접경권이 방수(2.75개), 부엌수(1.09)에서 다소 낮았다.

한편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형태로 알아본 주거시설수준도 전체적으로 남부고원권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고원권은 부엌시설 및 화장실중 재래식 사용율이 각각 4.9%, 23.4%로 타권역에 비해 가장 높았고, 목욕시설에서도 비온수 시설 사용율(2.4%) 및 목

욕시설이 없는 비율(14.5%)이 타권역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밖에 설악권은 화장실 재래식 부엌사용율이 3.3%, 중앙접경권은 재래식 화장실 사용율이 23.4%로 타권역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은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역시 남부고원권이 38.2%로 월등히 높고 중앙접경권이 34.1%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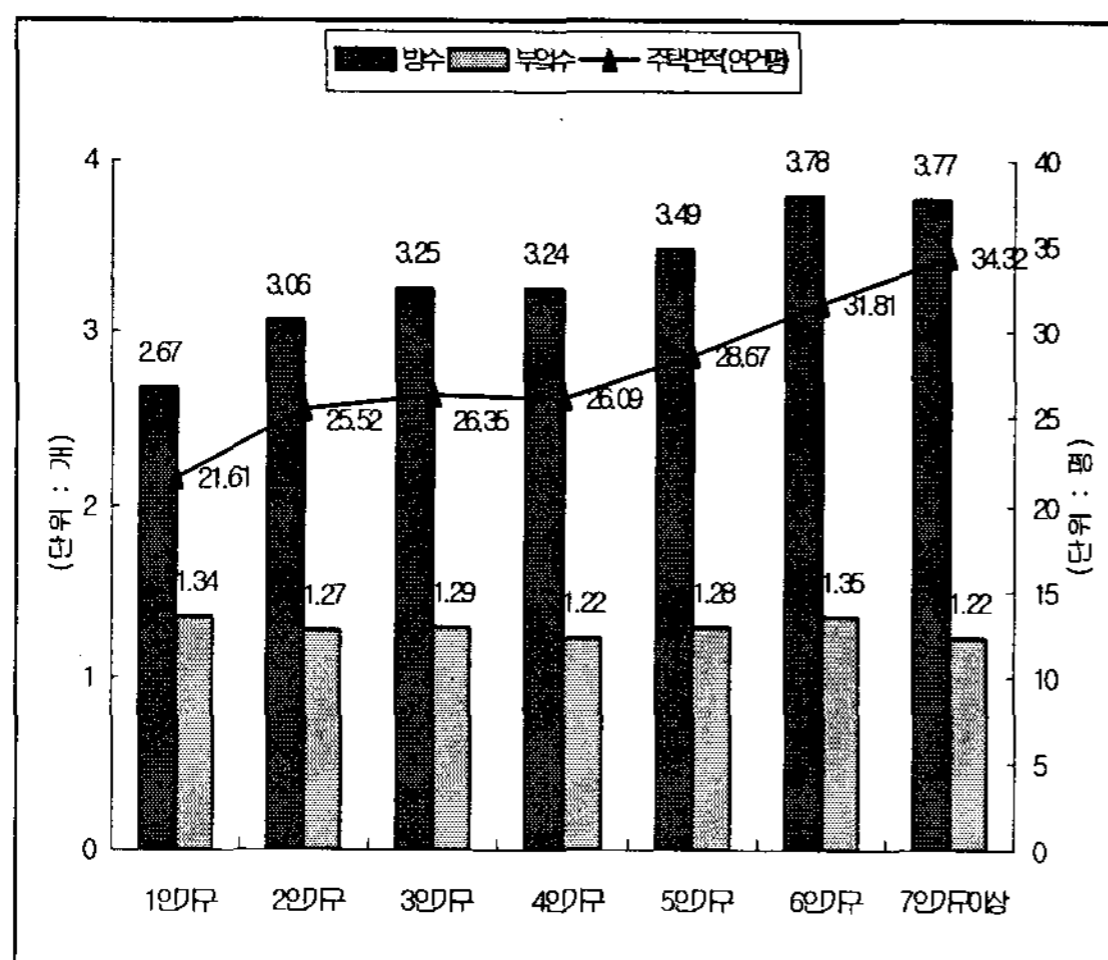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남부고원권에서 주거 및 주거시설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가운데 가구원수별 주거수준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최저주거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권역은 발견되지 않았다(이 부분은 읍면동 등 보다 하위 행정단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1인가구는 호반권, 내륙권, 대관령권의 주거수준이 타권역에 비해 높았고 7인가구 이상은 방수 면에서는 설악권(3.55개)과 중앙접경권(3.56개)이 다소 열악하고 주택면적과 부엌수 면에서는 남부고원권(29.81평, 1.06개)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남부고원권은 거주 및 거주시설 수준 전반에 걸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부고원권과 중앙접경권은 노후주택율이 타권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 또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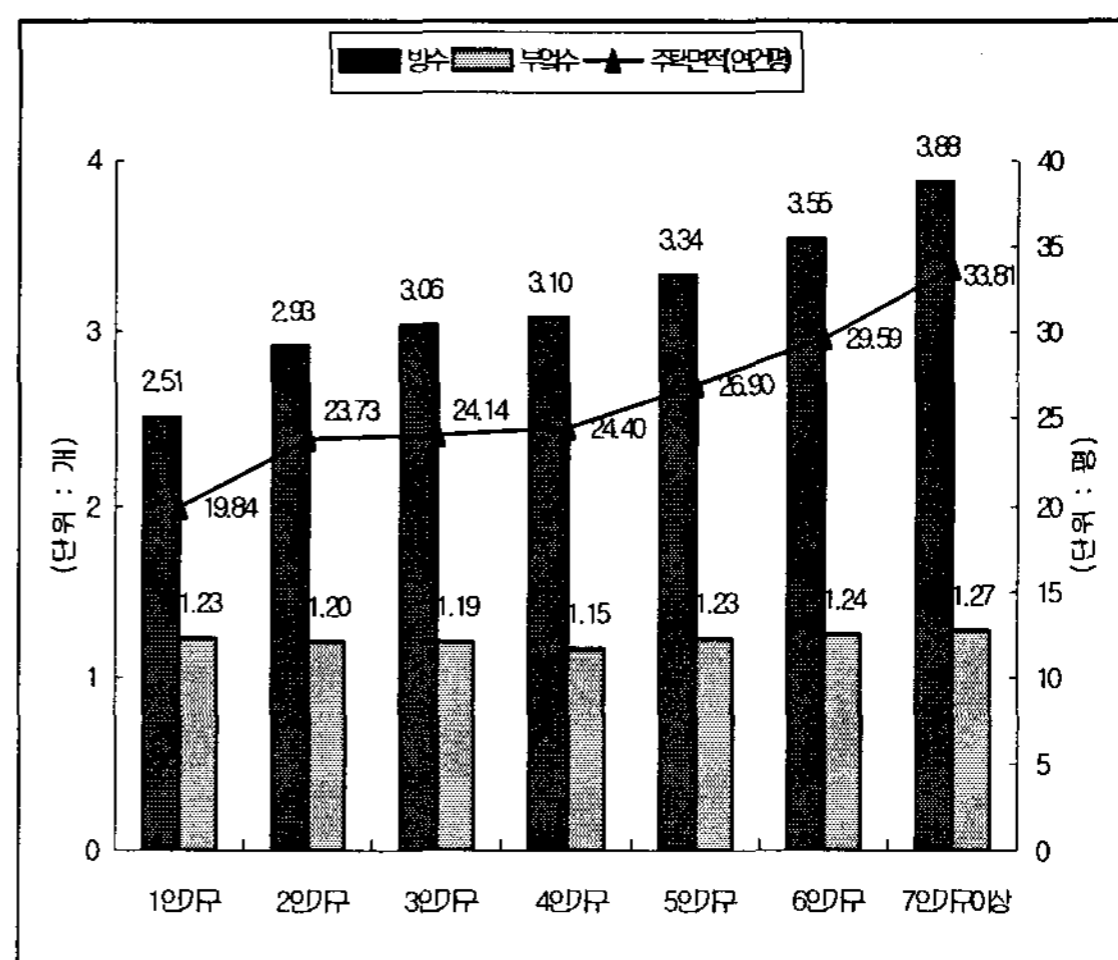
한편 호반권은 주거 및 주거시설수준이 타권역에 비해 높아 주택과 관련된 주거여건은 호반권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3> 가구원수별 주거수준 비교(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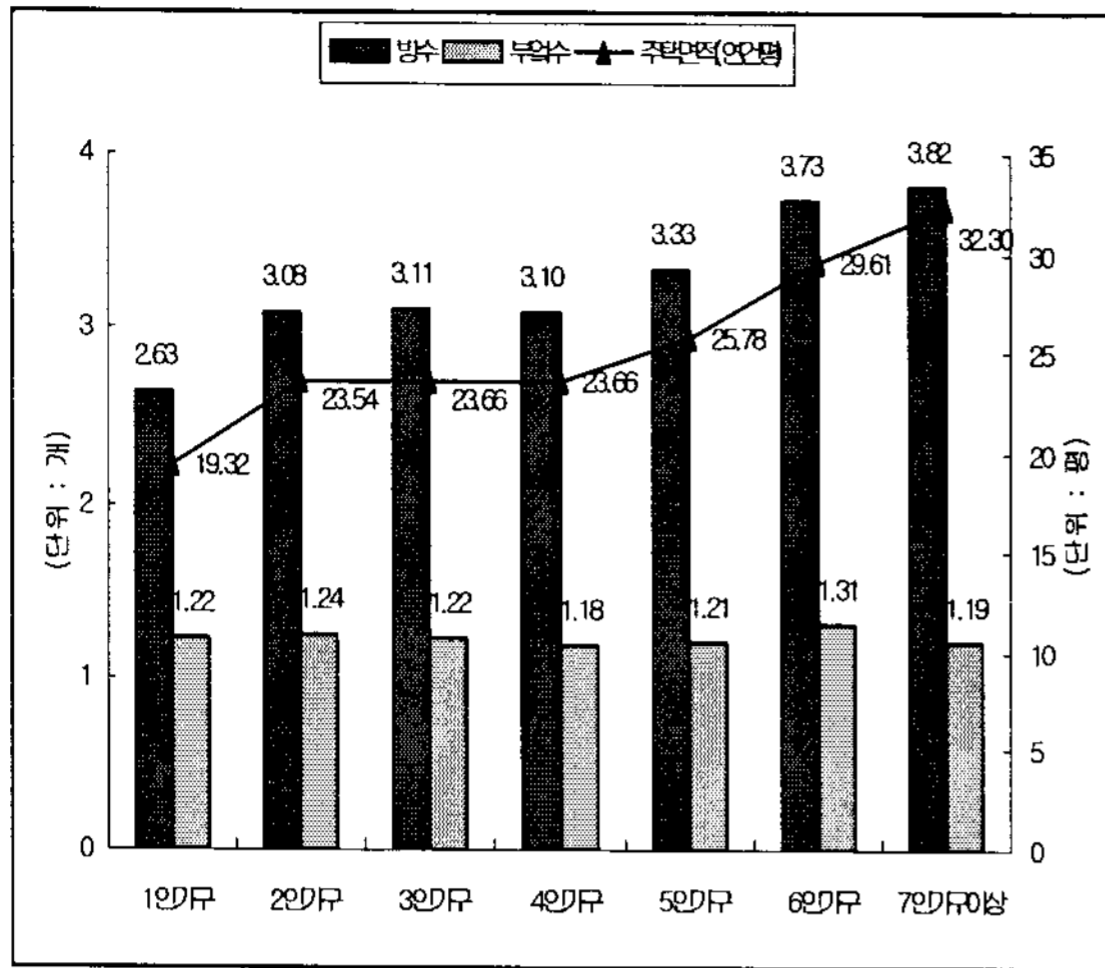
<호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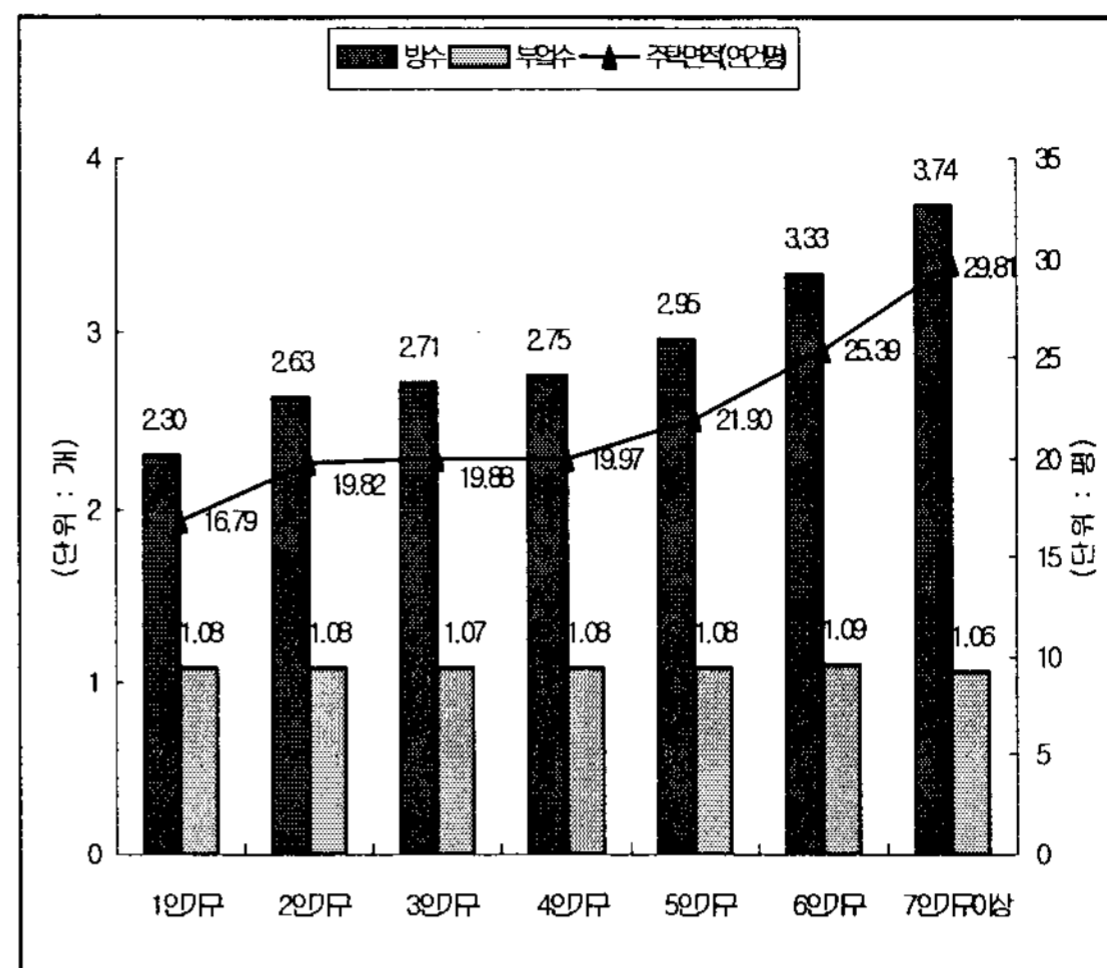
<내륙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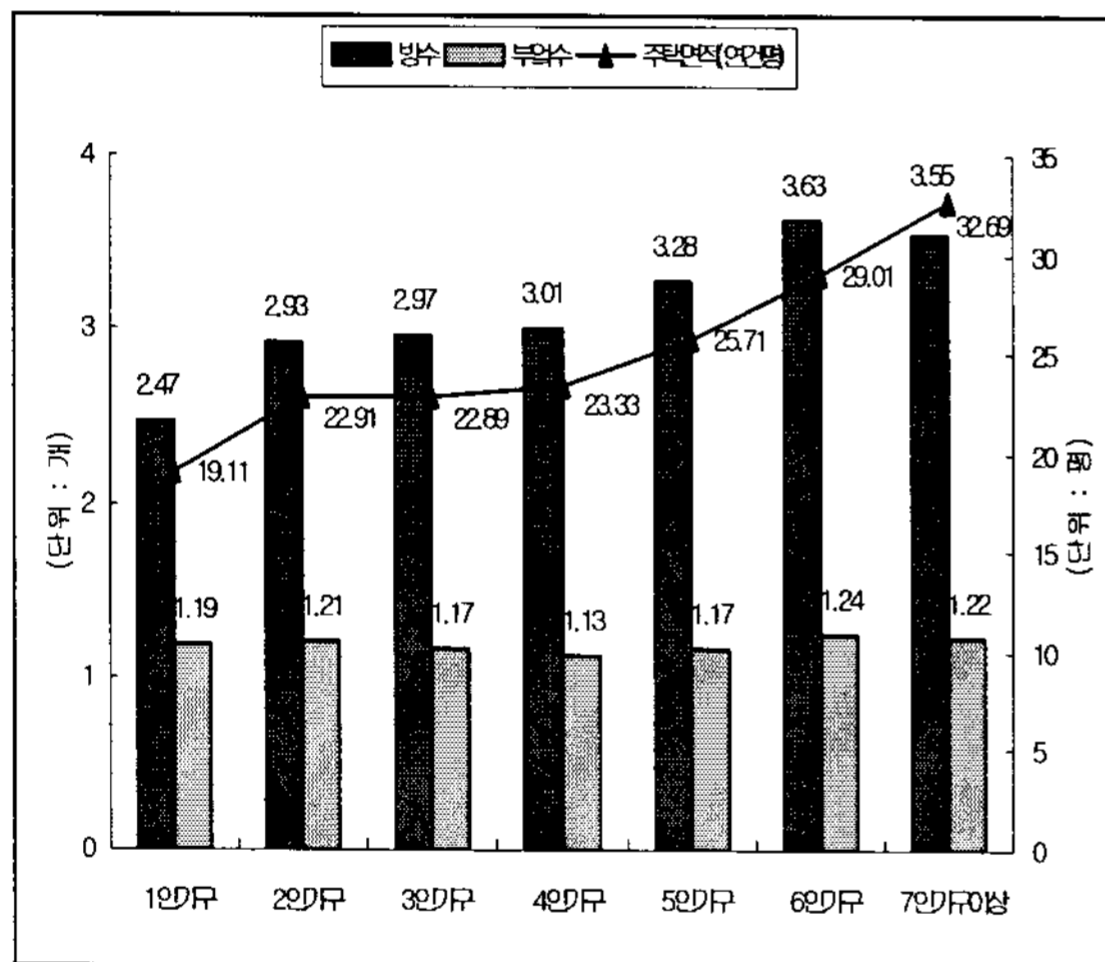
<대관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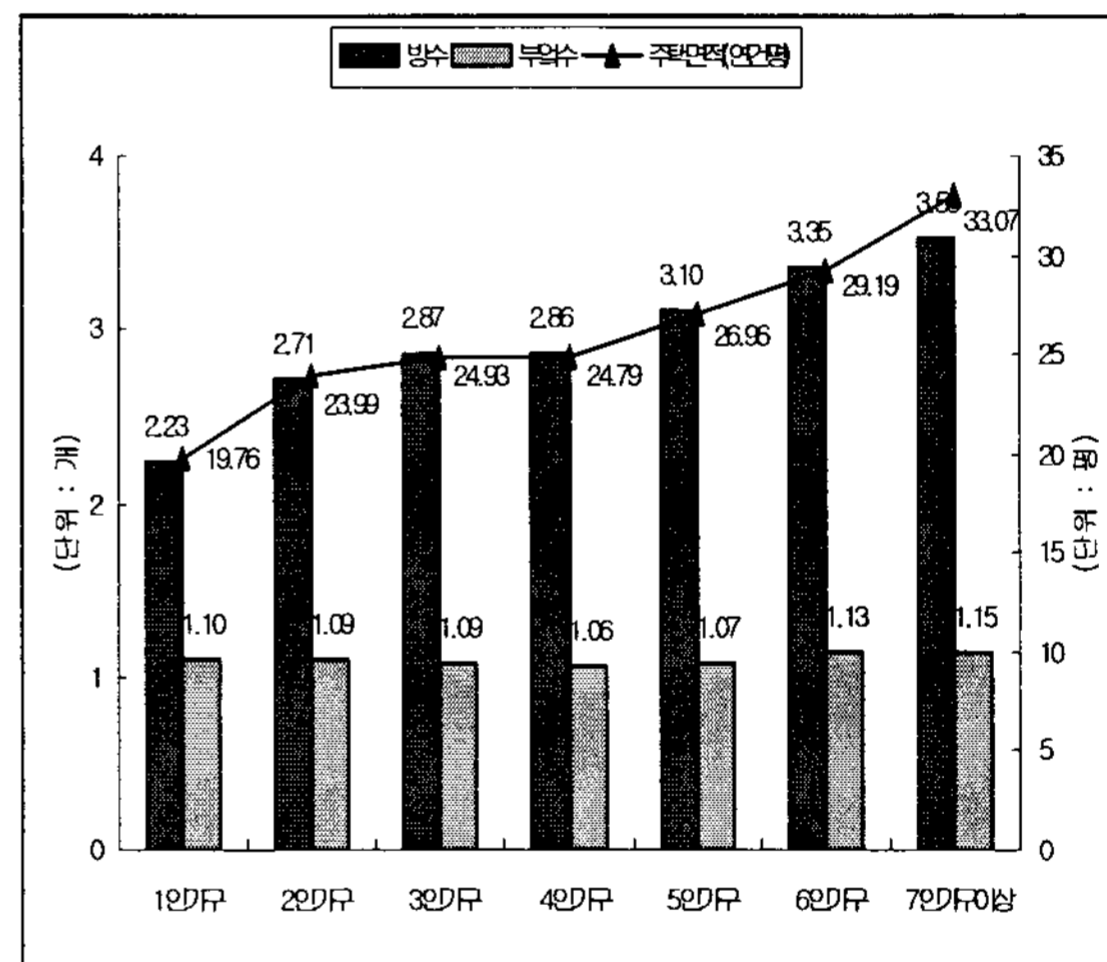
<남부고원권>



<설악권>



<중앙접경권>



4. 정책적 시사점

본고는 인구주택 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 경제상태, 주거(시설)수준을 중심으로 강원도 6대 생활권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권역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호반권

호반권은 도내 인구이동 형태로 볼 때, 춘천을 중심으로 홍천, 화천, 양구, 인제를 포함하

는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도내로 부터의 인구유입(또는 이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타 시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의 교통망 열악과 핵심전략산업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권역이 추구하는 수도권배후 청정산업지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기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정비 및 추진되어야 하며 더불어 원주축인 내륙권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 나타난 호반권의 주거의 질 및 교육여건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이 요구하다.

2) 내륙권

내륙권은 외지인, 특히 수도권 및 충청권 인구유입이 현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적으로도 내륙권이 추구하는 국토내륙 지식기반산업 및 수도권 연계형 발전전략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본 권역은 제조업의 성장이 관건이지만 산업 및 직업구조면에서 도내 타권역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분야의 뚜렷한 우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원주시의 인구가 호반권으로 다수 이동하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 보면 호반권의 주거(시설) 수준에서의 우수성도 그 원인중 하나라고 추론할 수 있다.

3) 대관령권

대관령권은 경상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권 인구유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본 권역내에서 삼척과 동해에서 인구 이동이 심한데, 이는 삼척과 동해가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SOC사업 등 강릉, 동해 삼척이 공동 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상권과 연계를 도모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대관령권은 타권역에 비해 기술직 등 준 전문가, 기능원 등의 직종비율이 타권역에 비해 높았다. 고급 전문 기술인력의 발굴과 활용차원에서 이들 직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4) 남부고원권

남부고원권은 현재 인구가 현격히 감소되고 있는 지역이다. 본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 95

년에 비해 수도권 유입인구가 과반수 이상 감소하였고 도내 유입인구 또한 3배 가량 감소하였다. 도내 유입인구의 경우 춘천과 강릉에서의 유입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시점에서 도로건설을 통한 수도권 등과의 접근성 강화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맹목적 의존보다는 먼저 지역밀착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직업별 종사자수 분석에서도 단순노무자 비율이 타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고용안정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본 권역은 중심도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바, 태백과 삼척이 연계하여 중심도시로 성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인프라 확충 및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본 분석의 결과만으로 보았을 때, 남부고원권의 주거(시설)수준이 도내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내 주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5) 설악권

설악권은 서울수도권으로부터 인구유입이 95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다. 수도권 인구유입은 주변지역인 대관령권에 비해 흡수력이 크다고 볼수 있다(95년 대비 대관령권은 유입비율 감소). 본 권역은 도내 이동으로 보았을 때 속초, 고성, 양양을 중심으로 단일 권역으로 성장중에 있다.

산업구조면에서 서비스업부문 등에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대관령권과 매우 유사하다. 두 권역 모두 관광산업이 전략산업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두 권역간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6) 중앙접경권

중앙접경권은 단일권역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감소하고 도내로부터의 인구유입이 95년에 비해 1,000명 이상 감소하였다. 도내에서 주로 유출되는 권역은 호반권이였다. 본 권역과 호반권 및 수도권과의 관계설정 문제, 중앙접경권을 어떻게 독자적 권역으로 강화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를 강원도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권역은 경제면에서 농림어업이 41%를 차지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주거(시설) 수준도 다소 낮았고 노후주택율도 타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주거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지원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탐색적인 연구임을 밝힌다. 특히, 인구가동 및 경제상태 분석에서 95년, 2000년 원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05년 현재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시, 분석단위를 하위행정단위에서 분석하면 주민의 실생활과 관

련된 더 많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예:인구이동 및 주거(시설)수준을 읍면동내에서 분석 등).

<부표> 가구원수별 최소주거수준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가구	1K	12(3.6평)
2	부부	1DK	20(6.1평)
3	부부+자녀1	2DK	29(8.8평)
4	부부+자녀2	3DK	37(11.2평)
5	부부+자녀3	3DK	41(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49(14.8평)

주1. K: 부엌, DK: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자료. 건설교통부(2004년),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발표자료.